

목포시 '삼학도 관광유람선 사업' 졸속 추진

목포시가 '삼학도 관광유람선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공모 정당성과 허위 제안서 논란, 안전 사고 대책 미흡 등 총체적인 부실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이 사업과 관련한 정보공개 서비스에서도 엉뚱한 자료를 제공(광주일보 7월16일자 12면), 목포시의회로부터 강하게 질타를 받았다.

20일 목포시의회와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4대 관광거점도시'와 연계해 '삼학도 관광유람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항만 관광자원을 활용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목포시는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졸속으로 진행, 공모의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업에는 민간사업자 2곳이 응모했다. 그러나 1곳이 현재 목포시의원이었던 탓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자격이 박탈됐다. 결국 A업체 1곳만이 응모한 셈이다. 사실상 경쟁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지방계약법에 따라 재공모가 불가피한 조건이었다.

하지만 목포시는 이같은 절차를 무시한 채 적격심사를 거쳐 지난 1월 16일 A업체를 사업자로 최종



■'삼학도 관광유람선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 ☑ 공모 정당성 논란
현직의원 업체 탈락에 재공모 없이 선정
- ☑ 허위 제안서 물의
선정 업체, 소유 선박 없이 사용권 빌려 영업
- ☑ 사고 때 책임분쟁 우려

시의회, 엉뚱한 정보제공 질타...시 "안전 점검 지속·행정지원 할 것"

선정했다.

A업체는 허위 제안서 제출 논란에도 휘말렸다. A업체가 공모 심사를 위해 제출한 제안서와 선정 이후 운영을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안서에는 선박 2척을 매입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매매계약만 하고 사용권을 빌려 영업하고 있다. 사실상 허위 제안서를 제출해 선정된 셈이다.

A업체 관계자는 "3월 말까지 선박을 매입할 예정이었지만 회사 여건상 우선 계약금만 치렀다"며 "오

는 9월과 내년 6월까지 선박 2척의 잔금을 지불해 소유권을 이전받을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적격심사에 참여한 한 심사위원은 "당시 A업체와 경쟁했던 B업체는 선박 2척을 소유하고 있어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대표자가 현재 목포시의원인 것으로 확인돼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돼 탈락시켰다"면서 "시간이 촉박함을 들어 재공모 없이 단독으로 남은 B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의 시급성을 들어 재공모를 하지 않고 A업체를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제안서와 다르게 A업체가 선박을 소유하지 못함에 따라 사고 발생시 책임 분장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사용권이 있으면 유람선 운영은 가능하지만 선박이나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목포해양경찰 인허가 담당은 "유람선의 경우 소유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용권이 있으면 인허가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선박사고나 인명사고 발생하면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의회는 목포시의 엉뚱한 정보공개 서비스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최종립 목포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16일 목포시 업무보고에서 '삼학도 관광유람선 공모사업'과 관련한 정보공개가 엉망이라고 지적한 뒤 정보공개서비스 질과 투명성 향상을 주문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안전 점검과 유람선 운항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다하는 한편 투명한 정보공개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해남에 맞는 농업 시범사업은 내달 4일까지 주민 공모

해남군은 내년에 실시할 농업 시범사업에 대해 주민 공모 제안을 받는다.

20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투명한 시범사업 발굴과 수요 대상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달 4일까지 2021년 시범사업 공모 제안 제도를 운용한다.

시범사업은 어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그 결과를 예측하고자 시험 삼아 실시하는 사업으로 단순·반복적 지원사업과 달리 새로운 농업 기술을 발굴하고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다.

공모 제안 대상은 2021년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에 편성되기를 원하는 사업이다. 해남군의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에 필요한 사업, 노동력·생산비 절감, 소득증대 사업, 기타 해남농업 발전에 파급 효과가 큰 사업 등이다.

농업인과 작목별 생산자(단체), 관련 업종 종사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주요 관련 기술 현황, 제안 내용 등을 작성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기우편으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남군은 공모 제안을 통해 다양한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범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시범사업 추진 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지원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제안제도 운영을 통해 농업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사업발굴과 투명한 사업 추진으로 해남농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사랑상품권 구매 릴레이 1년... 16억7천만원 판매고

학교·기업체 등 106개소 동참
240억 소진 때까지 10% 할인
모바일·전자화폐 도입도 검토

지난해 7월 시작한 해남사랑상품권 구매 릴레이 캠페인이 1년 만에 16억7000만원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20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해남사랑상품권 구매 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지역 기관·단체, 학교, 기업체 등 대상으로 해남사랑상품권 10억원 구매 릴레이 행사를 추진했다.

릴레이 구매는 지난해 7월 광주은행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지역 106개 업체, 16억7000여만원의 구매 실적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지역 기관·단체, 학교, 기업체 등 대상으로 해남사랑상품권 10억원 구매 릴레이 행사를 추진했다.

해남교통 노사는 지난 10일 근로자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던 무사고 포상금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매월 1000만원씩 연간 1억2000만원에 달한다.

최선기 해남교통 대표는 "지역자본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해남사랑상품권을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해남사랑상품권은 지난해 4월17일 첫 발행을 시작한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총 1200억원어치를 발행, 910억원이 판매되며 안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해남교통 노사가 지난 10일 근로자에게 매월 10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던 무사고 포상금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해남군 제공>

지난해 150억원 규모로 처음 발행된 이래 올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등으로 발행 규모를 1050억원까지 크게 늘렸다.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민수당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농민수당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면 그 돈은 자연스럽게 지역업체들에게 돌아간다.

한 농업경제 전문가는 "농민수당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것이 신의 한수였다"고 극찬했다. 이는 코로나 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역상품권과 병행해 지급하는 모델이 됐다.

해남군은 올해 국비 19억2000만원을 확보, 20일부터 240억원 규모의 10% 특별할인 판매에 들어갔다.

불법 환전 등의 부당유통을 방지하고 지류 형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전자 화폐 도입을 검토 중이다.

병현관 해남군수는 "지역 기업체와 기관 등에서 솔선수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사주기에 동참해줘 감사하다"며 "해남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싱싱 자동차극장

완도 명사십리에서 개봉영화 감상하세요

25일 '침입자' 상영
31일부터 멀티미디어쇼

완도 명사십리해변에서 자동차극장이 운영되고 대형 멀티미디어 쇼가 펼쳐진다. 20일 완도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 상상콘서트'와 '명사십리해변 클 콘서트'를 취소하고, 대신 오는 25일 제2주차장에서 자동차극장을 운영한다. 제2주차장은 자동차 1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부지와 교통 흐름이 좋아 자동차극장으로는 최적의 요건을 갖춘 장소다. 해변을 배경으로 가로 20m, 세로 11m의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최근 개봉작인 '침입자'를 상영할 예정이다. 또 명사십리해변에서는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10일간 대형 멀티미디어 쇼도 펼쳐진다. 백사장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주간에는 완도 관광, 해양치유, 해조류박람회 등 완도 홍보 영상을 상영하고 지역의 음식점과 특산물 판매 업소를 홍보하기로 했다. 특별 이벤트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프러포즈 타임, 생일축하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야간에는 영화와 뮤직비디오를 방영하고 특수 조명과 레이저 쇼 등 주·야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운영해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음주운항 선박 일제 단속

목포해경 25일

목포해양경찰은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음주운항사고가 잦아짐에 따라 오는 25일 주말에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지난달 11일 신안군 정주도 서쪽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로 적발된 운항자가 이달 4일 신안군 장갑리 앞 해상에서 0.236%로 다시 적발되는 등 재범 사례가 발생,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음주운항 단속은 경비함정이 책임구역에서 지그재그 운항 등 음주운항 의심 선박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062-412-2800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도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광주에서 30~40분 소요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수목장 묘지이장 문의